

<b>제 목</b>	다음 여행을 기다리며 - 나의 여행 회고록		
<b>소속 대학</b>	의과대학	<b>소속 학과</b>	의학과
<b>학 번</b>	2019****	<b>이 름</b>	유*영

곧 방학이 다가옴에 따라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은 마음에 하루하루 유튜브 여행 브이로그를 들여다보고 있는 나날이었다. 그러던 어느 하루는, 문득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여행이라는 것의 목적이 새로운 것을 보고, 배우고, 느끼기 위한 것이라면, 유튜브 속 영상이나 집 소파에 누워서 여행 프로그램을 보는 것도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한 번 이런 생각이 들자 여행의 의미에 관한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사람들은 왜 불편함을 감수하고 여행을 떠나는 것일까?, 일반적으로 여행은 가고 싶은 것, 즐거운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데 이러한 생각은 어디에 기반을 두는 것일까?”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이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었던 여행이라고 기억되는 여정을 떠올려 보게 되었다.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여행은 역설적이게도, 코로나19로 인해 갔다 온 이후에는 여행을 망쳐버렸다는 절망감에 한동안 갇히게 만들었던, 바로 그 독일 여행이었다. 해외 경험이 거의 없는 나는 대학생이 된 이후에 교환학생을 가보는 것이 버킷리스트 중 하나였고, 입학 한 이후부터 줄곧 교환학생에 가 보고 싶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는 했었다. 그런데 교환학생에 선정되고 차근히 준비를 하던 무렵 겨울, 코로나19가 한국에서 막 퍼지기 시작하였다. 지금 돌이켜 보면 이때부터 무언가 삐걱대기 시작했던 것 같다. 한국에 머무를 당시에는 이미 유럽에 가 있는 학생들은 몇 개월 동안 생활을 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오히려 해외로 가는 것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다고, 다행이라고도 말해 주었었다. 출국 이틀 전에 내가 가는 지역에도 코로나19 환자가 2명 정도 발생하였다고 독일 학교 측으로부터 이메일이 오기는 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기대에 부풀어 독일에 도착하였다. 문제는 등교 이틀 날부터 시작되었다. 점심시간 이후, 갑자기 수업 중간에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러 사라지시더니, 코로나19가 퍼지고 있기 때문에 당장부터 2주 이상 도시 전체의 락다운이 시작될 예정이고, 등교할 필요가 없었다고 하였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이 나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불안불안한 마음이 현실로 다가왔던 것이었다.

그 날 숙소에 돌아온 이후에는 현실감도 없었고 멍한 느낌뿐이었다. 당장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같이 교환학생에 갔던 학생들도 우왕좌왕하였다. 학교에서 온라인 강의라도 열어 준다는 확신을 주지는 않았고, 이도저도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흘러갔다. 뉴스에서는 지속적으로 유럽이나 미국 사회에서의 동양인 폭행에 관한 뉴스를 접하다 보니 두려움이 커져갔고, 먹을 것을 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외출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나를 보면 멀쩡이 떨어지거나, 입을 소매로 막는 등의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인종 차별을 겪기도 하였다. 마트에서 계산할 때 우리 순서가 되면, 계산원이 갑자기 뛰어가서 장갑을 끼고 오는 경우도 있었다. 이런 상황

이 지속되고, 양 국가의 학교 측에 이메일을 보내 보아도 원론적인 답 외에는 어떠한 확실한 답변을 받기 어려워서 무턱대고 기다리는 날들이 늘어갔다. 결국 며칠간의 고민 끝에 한국에 귀국하기로 결심하였다. 돌아오는 길에도, 숙소를 떠나기 30분 전 예매했던 비행기가 취소되었던 일도 있었고, 역으로 가는 새벽 기차가 중간에 영문도 1시간 이상 멈춰 서서 불안에 떨기도 하였고, 취소된 비행기표에 대한 환불을 겨우 받아내는 등 쉽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다. 그렇게 나의 독일 여행은 3주만에 끝나버렸다. 한국에 돌아와서도 2주 간 방 안에서 자가격리를 하는 동안, 꿈꿔왔던 목표를 망쳐버렸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시기가 아니면 다시 오지 않을 기회를 허무하게 날려버렸다고, 6개월 정도의 계획이 단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렸다는 허무함만이 남아서 기분이 매우 좋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가끔 “그래도 3주라도 직접 살아보고 온 게 어디야, 분명히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고 말해 주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전혀 이런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3주간의 짧은 교환학생 기간의 의미는 시간이 지날수록 또렷해져갔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꽤 흐르고, 독일에 대한 기억과 슬픔이 점점 희미해져 갈 즈음에, 한 번은 같이 교환학생을 갔다 온 학생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때 당시의 순간들 중 기분 좋은 느낌은 진하게 남아 있었고, 힘들고 우울했던 기억은 어느새 마음 한편에 큰 경험이 되어 자리하고 있었다. 독일에 처음 도착한 날 인터넷도 되지 않는 마당에, 기차가 도착역을 지나쳐 2시간 이상 달리는 상황에서 웃으면서 마음을 안정시켜줬던 이름도 모르는 터키 아저씨, 등교 중 갑자기 트램이 운행하지 않아서 급하게 아무 버스나 탔다가 어딘지도 모르는 정류장에서 내려 1시간 이상 지각한 상황에서 학교로 한참동안 걸어갔을 때 만났던 깨끗한 하늘과 자유로운 느낌, 매일 저녁 다 같이 모여 3시간씩 음식을 해 먹고 떠들고 놀았던 추억들 등등, 나열하자면 끝도 없지만, 힘들고 어려웠던 와중에 소중한 즐거웠던 기억들이 불쑥불쑥 떠올랐다. 반면 생전 처음 겪어보았던 무력감과 나 자신을 시험에 들게 했던 수많은 상황들은, 그때의 고생스러운 감정들은 잊힌 채 경험이라는 무기가 되어 또 다른 시련이 왔을 때를 대비할 수 있는 단단한 내면이 되어 있었다.



사진1 우연의 우연이 만들어 준 넓고 깨끗한 하늘을 만난 순간 (본인 촬영)

몇 년이 흘러 이후에 다른 기회를 통해 또 다시 해외에 나가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합격까지 되었던 상황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일방적으로 그 기회를 취소당하는 경우가 생겼다. 독일에서의 악몽이 떠오르면서 나는 해외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하여 포기하고 있었지만, 이전과 같은 실망감은 들지 않았다. 이보다 더한 상황을 겪어 보았던 경험이, 차라리 출발하기도 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음을 다행으로 여기게 만들었고, 생각보다 상황을 덤덤하게 받아들이게 되었다. 심정적으로 포기하게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운 좋게도 시기가 맞아들어 또 다른 비슷한 기회가 찾아와 일본에 가서 머무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원하는 지역에 선정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맞는 친구와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좋았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가 찾아왔다는 자체에 감사했다. 독일과 달리 부푼 마음은 없는 상태였지만, 일본에 가서 머무르는 동안 예상치 못했던 지점에서 마주쳤던 모두의 친절과 환대, 뜻밖의 행운들은 한 달 동안의 경험을 딱 채워주었다. 연수 첫 날, 학교에서 타고 다니라고 그냥 빌려주신

자전거를 작동할 줄 몰라서 학교 한쪽 구석에서 계속 킁킁거리고 있었을 때, 나를 기다리던 같은 조 학생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우르르 나타나서 나를 돕겠다고 둥글게 모여 있었던 그 날의 감동은 잊을 수가 없다. 또 마지막 날엔, 떠나기 전에 일본을 경험시켜 주겠다고, 일본어도 잘 못해서 말도 안 통하는 나를, 선생님들께서 새벽까지 이자카야와 가라오케를 데려가 열심히 먹이고 놀아주셨던 기억이 있다. 일본에서 돌아와서는 이전과는 다른 진한 허망함이 오래 남아있었는데, 아직까지도 그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사함과 아쉬움이 뒤섞여 이런 즐거움을 다시 겪어보게 될 수 있을까라는 감정이었던 것 같다.

적다면 적지만 나름 알찼던 내 여행 경험을 돌이켜 보고 나니, 처음 머릿속에 들었던 의문들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었다. 여행을 진정한 여행답게 만들어 주는 것은 바로 여행만이 가질 수 있는 '우연성'이다. 집 안에서 편하게 눈으로 세계를 탐험하고, 관광버스에 앉아 가이드가 이끌어 주는 대로 따라다니는 안정적인 체험에서는 겪어보기 어려운 우연성은, 내가 직접 그 상황에 던져지지 않는 이상 경험할 수 없다. 여행을 떠나게 되면, 시작부터 끝까지 대부분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결해야 하며, 많은 부분이 내가 예상한 것들과는 다르게 흘러가기 마련이다. 해변의 일몰을 보러 간 날 날씨가 갑자기 짙어질 수도 있고, 시간 계산을 잘못해 열심히 뛰었는데도 기차를 놓칠 수도 있다. 어느 장소 어떤 누군가를 만나 갑자기 위험에 처할 수도, 때로는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장소를 소개받아 기존 계획은 팽개치고 그곳으로 이끌리듯 떠나기도 한다. 만약 코로나로 인한 섯다운이 시작되기 전에 어디로든지 갔다 오자고 했던 근교여행에서, 가는 곳마다 문을 닫아 터덜터덜 걸어다니지 않았더라면, 발 닿는 곳에서 우연히 마주했던 아름다운 강변의 풍경은 만나지 못했었을 것이다. 이렇듯 확정적이고 편안한 환경에서 만나는 아름다운 영상이 담긴 유튜브 브이로그와 달리,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말도 잘 안 통하는 낯선 세계에서 순간마다 계속 결정하고 탐험해 나가는 것이 여행이 주는 불안정함의 묘미이다.



사진2 터덜터덜 걸어다니다 만났던 독일 근교의 강변 풍경 (본인 촬영)

여행이 가지는 우연성이라는 특수함은 특유의 포용성을 가져오기도 한다. 여행 과정 동안 실망하거나 곤혹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경우도 많지만, 그런 상황은 여행이라는 이름하에 용서되고 잊히기 마련이다. 예상되는 불편함에 직접 지불해 가면서까지 뛰어드는 것이 모순적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경험이라는 힘이 되어 다음을 대비할 수 있는 안정적인 울타리가 되어 준다. 꼭 여행뿐만 아니라 다른 새로운 무언가를 시도할 용기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여의치 않은 여러 상황에 대해서도 불안감을 낮춰주기도 하며,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이해심을 바탕으로 기다릴 수 있게 만들어 준다.

한편 여행이 가지는 또 다른 매력은, 잔뜩 긴장하고 생각지 못했던 지점에서 만나는 친절함과 따스함이다. 이런 감사함은 어느 다른 상황보다 여행에서 배로 느껴지고, 또 이러한 감정은 돌고 돌아 다른 누군가에게 전가되기도 한다. 이렇게 모르는 누군가와 누군가가 알게 모르게 연결되고, 이러한 연결성이 닫혀 있던 마음을 열어 주어 더 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일본에서 한국에 돌아온 직후 어찌다 보니 바로 외국인 학생과 함께하게 될 기회가 있었는데, 일본에서 느꼈던 배려와 감동은 전달하고, 순간순간 느꼈던 고독감은 겪지 않

있으면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 해 그 학생을 대하게 되었다. 누군가에게 느꼈던 고마움을 바로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것이 정말 한 치 앞도 모를 일이라고 생각하였다.

여기까지에 생각이 다다르니, 수많은 예측불가능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일생의 어떤 순간들도 다 넓은 의미의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은, 새로운 공간, 새로운 사람을 만나 새로운 경험을 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지만, 그렇다고 그러한 모든 경험이 '여행'이 되지는 않는다. 반면 꼭 어딘가로 떠나지 않더라도 흘러보내는 매일 속에서도 새로운 누군가가 일상에 들어오거나, 새로운 무언가를 하고, 그 과정에서 여러 복합적인 감정들을 느끼고 성장한다면, 그 순간은 오히려 여행이 된다. 어떠한 경험이 어떤 사람에게 '여행'으로 될 수 있을지조차 그 경험이 끝나고 그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미지수인 것이다. '인생은 여행이다'라는 흔한 격언의 의미 또한 새롭게 다가왔고, 독일에서의 경험은 여행이 아니었다고 성급하게 치부해 버렸던 어린 날의 나를 반성하게 되었다. 많은 생각이 스치고 난 이후에, 앞으로 넓은 마음으로 여행의 순간을 기다리고, 그 기회를 잡게 되면 그 자체로 즐길 수 있다고, 또 즐겨야겠다고 다짐하였다. 내가 찾아나서든, 아니면 언젠가 소리 소문도 없이 우연하게 찾아 올 다음 여행이 설레고 기다려졌다.

※ 선정된 에세이는 자료집으로 제작 가능합니다.